

SERMON 1. The Truth about the 'baptism' of the Spirit

■ 오늘의 본문말씀 : 디모데후서 2:15

Today's main verse is 2 Timothy 2:15:

『2 Timothy 2:15』¹⁵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디모데후서2:15』¹⁵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1 Introduction

Last month I received a Kakotalk message from Brother Hyung-Ki Park with a couple of pictures attached. 지난 달 저는 박형기 형제로부터 몇몇 그림과 함께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He wrote to me like this: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Dr. Tchah, I have felt a conflict in my spiritual life these days. “차 박사님, 저는 요즘 제 영적 삶에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It is about the powerful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I want to know your opinion about the happening which is described on page 202 of the book entitled 'putting down'(내려놓음) written by Missionary Yong-Kyu Lee (이용규 선교사). 저는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 이란 책의 202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박사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The happening he mentioned is as follows: 그가 언급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young men who were praying together in a large circle saw the pillar of fire poured into the center of the meeting at the same time.

큰 원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던 청년들은 동시에 불기둥이 모임의 한 가운데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When they were puzzled, the second strong pillar of fire struck their eyes, and they felt the presence of God and prayed even hotter.

그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두 번째 강한 불기둥이 감은 두 눈에 확 비쳐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였다.

The faces of the young men who experienced the fire were filled with unexpressable joy and peace.

불을 경험한 청년들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흘렀다.

As you know, this scene can be call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 the view of the charismatics. 아시는 것 처럼, 이는 카리스마주의자의 눈에는 성령침례로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Now, I'd like to know your opinions about this happening I just read to you. 제 방금 읽은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Do you want to have the same experience that they had? 여러분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Some of you might be eager to experience "fire" or something like that when you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불이나 그와 같은 경험을 매우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By the way, this book "Putting down" is a super best seller. 그런데, 이 "내려놓음" 이란 책은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It has had a great impact on so many Christians. 정말 많은 크리스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o, I don't think that it would be easy to criticize even a tiny part of this book. 그래서, 이 책의 어느 작은 부분을 비난하는 일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However, I am sure that we should not fear them which kill the body, but are not able to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ich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according to Matthew 10:28. 그러나, 마태복음 10:28절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As a Bible believer, I am also sure that 'baptism' of the Spir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Christians to discern in order to grow in the knowledge of Christ. 성경신자로서, 저는 또한 성령침례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Therefore, I want to speak the message entitled "the Truth about the 'baptism' of the Spirit'" by presenting 5 questions about it this morning.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다섯가지 질문을 통해 성령침례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at you allowed us to have a wonderful place to worship you this morning. And also thank you very much for providing us the perfect Word of the Truth in our hands at this time. Now I earnestly pray to you that you would anoint all of us with Holy Spirit and power so that we may learn sound doctrines to overcome this perverted world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1.2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침례

First question: What is the biblical definition of the Baptism of the Spirit? 첫째 질문: 성령침례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The baptism of the Spirit is taught in 11 passages of the New Testament. (Matthew 3:11; Mark 1:8; Luke 3:16; John 1:33; Acts 1:5; 11:16; Romans 6:1-7; 1 Corinthians 12:13; Galatians 3:26-28; Ephesians 4:5; Colossians 2:12) 성령침례는 신약 11 곳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Among them, 5 verses which are found in the Epistles, are descriptive and reveal the nature of Spirit baptism. 그 중에서, 다섯 구절이 서신서에 나오는데, 성령침례의 속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A study of these New Testament passages shows several things. 이 신약구절들을 공부해 보면 여러가지를 알게 됩니다.

1. It shows what Spirit baptism is. 성령침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The word 'baptism' means to dip or to sink or submerge. 침례라는 단어는 물 속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We use the word 'immerse' to convey this idea of placing one thing into another. 우리는 immersed (담그다) 라는 단어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생각을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Spirit baptism is immersion on a spiritual level. 성령침례는 영적수준에서의 immerse입니다.

It is presented as a two fold work: 그것은 두 가지의 일로 나타납니다.

The first thing is that Christ baptizes the believer into the Holy Spirit. 첫째 일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성령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Let's read John 1:33.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John1:33』³³ And I knew him not: but he that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he same said unto me, Upon whom thou shalt see the Spirit descending, and remaining on him, the same is he which baptizeth with the Holy Ghost.

『요한복음1:33』³³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시기에

As such, it is Christ Jesus that places the believer into the realm of the Spirit. 이렇듯이 신자를 성령의 영역 안으로 옮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second thing is that the Spirit baptizes the believer in the Body of Christ. 두번째는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하는 일입니다.

Let's read 1 Corinthians 12:13.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12:13』¹³ For by one Spirit are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we be] Jews or Gentiles, whether [we be] bond or free; and have been all made to drink into one Spirit.

『고린도전서 12:13』¹³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As such, it is the Holy Spirit that places the believer into the realm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이와 같이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역으로 옮기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2. The biblical study shows when Spirit baptism occurs.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령침례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The Bible teaches that Spirit baptism is part of the initial salvation experience. 성경은 성령침례가 구원이 시작될 때의 경험의 일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It takes place when one receives Jesus Christ and is born again.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날 때 일어납니다.

Spirit baptism is uniformly associated with faith in Christ. 성령침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한결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Let's read Galatians 3:26-28. 갈라디아서 3장 26-28절을 보겠습니다.

『Galatians 3:26-28』²⁶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Christ Jesus. ²⁷ For as many of you as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²⁸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갈라디아서 3:26-28』²⁶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²⁷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²⁸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3. The New Testament study shows who is baptized by the Spirit. 신약 공부는 누가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The Scripture teaches that all Christians have received the baptism.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침례를 받아 왔음을 가르칩니다.

If Spirit baptism is part of initial salvation, it would logically follow that all Christians have received it. 만일 성령침례가 초기 구원의 일부라면, 논리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침례를 받는 일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This is clearly stated in 1 Corinthians 12:13: 이는 고린도전서 12:13절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1 Corinthians 12:13』¹³ For by one Spirit are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we be] Jews or Gentiles, whether [we be] bond or free; and have been all made to drink into one Spirit.

『고린도전서 12:13』¹³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A person either has been saved and also baptized into Christ or he is still unsaved and also not baptized into Christ.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던지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There can be no such thing as a non-Spirit-baptized believer. 성령침례를 받지 않은 신자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The carnality of some Christians in Corinth is plainly mentioned, and yet even they had been baptized by the Spirit. 고린도의 일부 크리스찬들의 세속성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에 의해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니다.

4. Nowhere do these passages command or even suggest that the Christian should seek the baptism of the Spirit. 성경구절 어디에도 크리스찬이 성령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성령침례를 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hy this silence? 왜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입니까?

Because every Christian already had the baptism of the Spirit. 그 이야는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f it occurs at the time of salvation and is the blessed possession of all Christians, then no Christian needs to seek it. 만일 성령침례가 구원의 시점에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느 성도도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Baptism with Fire 불 침례

However, many charismatic Christians believe and assert that we should desire a 'baptism of FIRE' in order to be baptized with the Spirit. 그러나, 많은 카리스마적인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우리는 불침례를 소망해야 한다고 믿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the second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to be baptized with fire? 그렇다면, 두번째 질문은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Long time ago before I became a Bible believer, I went to an oratory or a private chapel (기도원) to receive 'baptism of FIRE.' 오래 전, 제가 성경신자가 되기 전에 저는 불침례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The main hall of the oratory was crowded with lots of people. 기도원의 메인 홀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During worship service all the people followed the leader and started to pray together with loud voices. 찬양예배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진행자를 따라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bout a minute after I started praying, I felt a flash of light or Fire in my head.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분 후 쯤, 저는 머리에 불 빛 혹은 불을 느꼈습니다.

Instantly I thought that I got 'baptism of FIRE.' Praise the Lord for that! 즉시 저는 불침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고, 주님 찬양을 외쳤습니다.

But within a minute I realized that the flash of light or Fire I felt in my head was not from God. 하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머리에 느꼈던 불 빛인지 불인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It was from the person just behind me. 그것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a woman who prayed earnestly moving her head back and forth, made me feel like that. 자기 머리를 앞 뒤로 열심히 움직이며 기도하던 여자 분이 저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Her forehead struck my head that I could feel I got 'baptism of FIRE' even for seconds. 그녀의 이마가 제 머리를 들이받아 저는 잠시 동안이지만 불침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fire is sometimes used to refer to God's judgment.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데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For example, Isaiah writes that the LORD will punish with flames of devouring fire. 예를 들어, 이사야는 주께서 삼키는 불꽃으로 벌을 내릴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Let's read Isaiah 29:6. 이사야서 29:6절을 보겠습니다.

『Isaiah 29:6』 ⁶ *Thou shalt be visited of the LORD of hosts with thunder, and with earthquake, and great noise, with storm and tempest, and the flame of devouring fire.*

『이사야 29:6』 ⁶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우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Similarly, in the New Testament in the Gospel of Matthew, John the Baptist warns the Pharisees and Sadducees about "the wrath to come" in chapter 3 verse 7. 비슷하게, 신약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해 경고합니다.

He adds that "every tree which bringeth not forth good fruit is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in verse 10 of same chapter. 그는 같은 장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In the very next verse, John states that Jesus will baptize “with fire.”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적습니다.

Let's read verse 11 of chapter 3 of Matthew.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Matthew3:11』¹¹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unto repentance: but he that cometh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hoes I am not worthy to bear: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마태복음3:11』¹¹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And John immediately continues by adding that Jesus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끌 수 없는 불로 껍질을 태우시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Let's read verse 12 of chapter 3 of Matthew.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Matthew3:12』¹² *Whose fan [is] in his hand, and he will thoroughly purge his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garner;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마태복음3:12』¹² 곧 손에 킶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In this passage fire is only presented in a negative light. 이 구절에서 불은 오직 부정적인 빛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he same thing is true for Luke 3:9-17, the only other place in the Bible that speaks of being baptized “with fire” (3:16). 성경에서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또 다른 유일한 곳인, 누가복음 3:9-17 (3:16) 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There are three more reasons that being baptized with fire means receiving judgement: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1. Jesus never told the disciples they would be baptized in fire on the day of Pentecost.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강림절에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Rather, he only said, “ye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Ghost not many days hence.” according to Acts 1:5b.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2. Even though they both quote John the Baptist as saying that Jesus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Mark 1:8, John 1:33), the gospels of Mark and John don't mention being baptized with fire, and, likewise, they don't mention anything about God's judgment (unlike Luke and Matthew).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라고 침례자 요한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로 받는 침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3. Even though Luke writes about being baptized with fire in his gospel, Luke never mentions it in the book of Acts (which he also wrote), and he also never says that anyone received the “fire” of the Spirit. 누가가 그가 쓴 복음서에서 불침례에 대해 적고 있기는 하지만, 누가는 (그가 쓴) 사도행전에서 불침례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또한 누구도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Therefore, the baptism of fire means that God will BURN all lost souls UP or destroy them forever, in the lake of fire (Revelation 20:14, Malachi 4:1)! 그러므로 불침례는 하나님께서 불 호수에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완전히 태우시리라, 혹은 영원히 파멸시키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14, 말라기 4:1)

It is a baptism you do not wish to receive! 불침례는 여러분이 받지 않기를 바랄 침례입니다.

1.4 Filling of the Spirit 성령 충만

On the contrary, it is the filling of the Spirit that we should seek or wish to receive. 이와 반대로, 우리가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However, the charismatic usually views the baptism of the Spirit and the filling of the Spirit as interchangeable, and combines them into a single ministry of the Spirit, even though they are distinct workings. 그러나, 카리스마주의자들은 보통 불침례를 성령충만과 상호 호환되는 것으로 보며, 그것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성령의 동일한 사역으로 묶어 취급하고 있습니다.

So, the third question is this: What is the exact biblical definition of the Filling of the Spirit? 그렇다면 세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령충만의 정확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The filling of the Spirit is taught in 15 passages of the New Testament. (Luke 1:15, 41, 67; 4:1; Acts 2:4; 4:8, 31; 6:3, 5; 7:55; 9:17; 11:24; 13:9, 52; Ephesians 5:18) 성령충만의 가르침은 신약에 15군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The fourteen in Luke and Acts simply state as a fact that individuals or a group were filled.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4군데는 개인과 단체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단순히 적고 있습니다.

The one in the Epistles gives a command to be filled. 에베소서에서는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Ephesians 5:18 is the most instructive passage about the filling of the Spirit. 에베소서 5:18절은 성령충만을 가장 강력히 지시하는 구절입니다.

Let's read Ephesians 5:18. 에베소서 5:18절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5:18』¹⁸ *And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에베소서 5:18』¹⁸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 It teaches what the filling is. 이 구절은 충만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To be filled is a symbolic statement meaning to be controlled or dominated.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통제되거나 지배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The contrast between being drunk (dominated) with wine and being filled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demonstrates this truth. 술 취함(술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과 성령충만(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의 대조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2. Ephesians 5:18 teaches when the filling occurs. 에베소서 5:18절은 언제 충만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줍니다.

The words “be filled” are in the present tense. 충만하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씌었습니다.

They speak of a continuing action. 계속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The paraphrase “be continually filled” would convey the idea of the original. 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해 보면,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에 있어라”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God intends the filling to be a continual experience of the believer. 하나님의 의도는 충만이 신자의 계속적인 경험이 되라는 것입니다.

However, the present tense indicates that the filling is not a once-for-all matter that automatically continues throughout the life. 그런데, 현재 시제는 “충만이 신자의 삶에 자동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단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must be maintained or it will be lost and then need to be restored. 그것은 유지되어야 하는 일이며, 유지되지 않는다면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3. Ephesians 5:18 teaches who is to be filled. 에베소서 5:18절은 누가 충만하게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This command is given to all believers, not just a select or spiritually few. 이 명령은 영적으로 선택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However, some fail to obey the command, and so not all are filled at any one time.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래서 모두가 어느 한 때 성령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The very fact that the believer must be commanded to be filled shows that this ministry of the Spir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신자가 성령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은 이 성령의 사역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One can submit to the Spirit and be filled, or one can resist Him and not be filled. 사람은 성령에게 순종하며 충만할 수 있고, 아니면 성령님을 거부하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 filling is obtained by yielding to God (Rom. 6:13; 12:1) and walking in the power of the Spirit (Gal. 5:16). 충만은 하나님께 맡김으로서 얻어지며 (롬 6:13, 12:1), 성령의 힘 안에서 걸음으로써 얻어집니다 (갈 5:16).

Let's read Romans 12:1 and Galatians 5:16 which show us how to obtain the filling of the Spirit. 로마서 12:1과 갈라디아서 5: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어떻게 성령충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Romans 12:1』¹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로마서 12:1』¹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Galatians 5:16』¹⁶ *[This]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and ye shall not fulfil the lust of the flesh.*

『갈라디아서 5:16』¹⁶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Now, I will summar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ptism of the Spirit and the filling of the Spirit. 이제, 성령침례와 성령충만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The baptism takes place only once; the filling may take place many times.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나며;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The baptism occurs at the time of regeneration; the filling occurs throughout the Christian life. 침례는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일어나며; 충만은 성도의 삶 전체를 통해 일어납니다.

The baptism is true of all believers at all times; the filling is true only of those who are obeying at the moment. 침례는 언제나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이며; 충만은 순종하는 순간에만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일입니다.

The baptism is never commanded, for it is God's responsibility; the filling is commanded, for the believer must meet certain conditions. 침례는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충만은 명령입니다. 신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The baptism is positional truth; the filling is experiential truth. 침례는 지위에 따른 진리이며; 충만은 경험적 진리입니다.

The baptism places one into Christ; the filling produces behaviour like Christ.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키며; 충만은 그리스도 처럼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As such, the Bible presents sharp differences between the baptism of the Spirit and the filling of the Spirit. 이와 같이, 성경은 성령침례와 성령충만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

However, the charismatics generally believe that the baptism of the Spirit does not have to occur at the time a person receives the Lord Jesus Christ as Saviour. 그런데, 카리스마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침례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They say that the baptism may take place at a subsequent time, close to or long after salvation. 그들은 침례가 나중에, 구원 후 금방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랜기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They may refer to this delayed baptism as a "second blessing". 그들은 뒤늦게 일어나는 침례를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The example of the apostles is a popular argument for a second, subsequent blessing of the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침례가 두 번째, 뒤에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논거로 사도들의 예를 흔히 들고 있습니다.

Admittedly the apostles were saved several years before the Day of Pentecost and even served as ministers of Christ. 사도들은 성령강림절 몇 년 전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Nevertheless, it was not until Acts chapter 2, that they experienced the baptism of the Spir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은 성령침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So, the fourth question arises: Why did the apostles receive the Spirit years after they were saved?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왜 사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성령님을 받았는가? 입니다.

or why is the baptism of the Spirit not a subsequent second blessing? 혹은 왜 성령침례가 뒤이어 오는 둘째 축복 아닌가? 입니다.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great change of God's administration that accompanied the Day of Pentecost.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강림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극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On that day the Church was born. 그 날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On that day the dispensation (경륜) in which we now live, began. 그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 이 시작되었습니다.

On that day the Holy Spirit began to minister to believers in a new way. 그 날에 성령께서 신자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is issue.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the misunderstandings about Holy Spirit is that He begins to appear in the New Testament.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성령님이 신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No way! Holy Spirit even had a part in Creation, according to Genesis 1:2.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2절에 따르면, 창조 때에 함께 계셨습니다.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He stirred men's heart. 구약 전체를 통해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으셨습니다.

He revealed God's truth.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He enabled certain people for special tasks.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He brought individuals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even indwelt some people as they fulfilled God's call. 그분은 개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안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However, in Old Testament times He did not indwell all believers permanently; nor did He baptize any believers. 하지만, 구약에서 그분은 모든 신자들 안에 영속적으로 거하시지 않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These ministries are unique to this age and were instituted on the Day of Pentecost. 이러한 사역들은 이 시대에 해당되는 독특한 일이며, 성령강림절에 제정되었습니다.

Let's think about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The Holy Spirit indwelt Saul beginning at his anointing as king (1 Sam. 10:1-6). 성령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때 부터 그에게 거하셨습니다.

But when Saul rebelled against God's will for him as king, the Spirit of the Lord departed from him (1 Sam. 16:14).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 주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삼상 16:14)

This is why David, the second king of Israel, cried out that the Lord would not take His Spirit away after David had sinned with Bathsheba (Ps. 51:11).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둘째 왕, 다윗이 그가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자신에게서 주의 영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울부짖었던 이유입니다 (시편 51:11)

Let's go to Psalm 51:11. 시편 51:11절로 가보겠습니다.

『Psalms51:11』¹¹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시편51:11』¹¹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David's prayer was based upon a very real possibility. 다윗의 기도는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Such a prayer would be out of place today since the Spirit resides with every believer until his or her death (Rom. 8:9). 그런 기도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데, 모든 신자가 죽을 때 까지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Let's read Romans 8:9. 로마서 8:9절 입니다.

『Romans8:9』⁹ But ye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so be that the Spirit of God dwell in you.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로마서8:9』⁹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Another misunderstanding about Holy Spirit is that He had been "given" during Christ's earthly ministry.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에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No way! The Holy Spirit had not yet been "given" during Christ's earthly ministry although He was active.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비록 그 때 활발히 활동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Christ said that after His own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He would send the Spirit when He returned to Heaven (John 16:7-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어, 땅에 묻히고, 부활한 후, 하늘로 돌아갈 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7-14)

Let's read John 16:7. 요한복음 16:7절을 보겠습니다.

『John16:7』⁷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I go away: for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요한복음16:7』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The Holy Spirit came, as Christ had prophesied, on the Day of Pentecost (Acts 11:15, 17).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듯이, 성령강림절 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행전 11:15,17).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universal, permanent indwelling of all believers.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시작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Eph. 1:22; 23).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엡 1:22, 23).

So, the Holy Spirit was not placing individuals into the Church before the Church existed. 성령님은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는 개인을 교회 안에 놓지 않았습니다.

In other words, Holy Spirit was not baptizing people at all before the Day of Pentecost.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성령강림절 전에는 사람들에게 결코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the apostles did not receive the baptism of the Spirit until the Day of Pentecost although they were saved years before Pentecost. 이것이 사도들이 성령강림전 훨씬 전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강림절 까지 성령침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The apostles' experience was unique because they straddled two different ages. 사도들의 경험은 서로 다른 두 시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They are not a pattern for us in this regard.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 우리와 다릅니다.

1.6 Sign of the Spirit's Baptism 성령침례의 신호

In addition to the term "second blessing" many charismatics love to mention "tongues" in association with the baptism of the Spirit. 둘째 축복이라는 단어에 덧붙여 많은 카리스마주의자들은 성령침례와 관련하여 방언을 언급하기 좋아합니다.

So to speak, they do believe that the gift of the tongues is the sure sign of the baptism of the Spirit, 말하자면, 방언의 선물이 성령침례의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and if one has received the baptism of the Spirit, then he or she should have spoken in tongues. 그리고 성령침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So the fifth and the last question arises: Is it true that the gift of tongues is the sure sign of the baptism of the Spirit?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방언의 선물이 성령침례의 분명한 신호라는 것이 사실인가? 입니다.

The answer is ? 대답은?

Of course, No! 물론, 아닙니다!

I think we are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without hesitation because we learned about the truth of

speaking in tongues last month. 지난 달 방언의 진실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ith this being said, one need only look at 1 Corinthians to refute this idea of the charismatics. 그렇다면, 이 카리스마주의자들의 생각을 반박하려면 고린도전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Corinthian church seemed to be the experts of the gift of tongues. 고린도교회는 방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The New Testament indicates that the gift was more prevalent there than in any other fellowship. 신약은 그 선물이 다른 곳 보다 그곳에서 더욱 넘쳤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s because the prevalence of tongues in the church at Corinth was specially intended to be a sign to the Jews, as we learned last month. 지난 달에 우리가 배운 것 처럼, 고린도교회에서 방언이 넘쳤던 것은 방언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However, not every Christians in Corinth had spoken in tongues. 하지만, 고린도의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It's because tongues were a gift, and God gives gifts "dividing to every man severally as he will" (1 Cor. 12:11). 방언은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12:11).

No believer received every gift. 어떤 신자도 모든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The Corinthians had not all spoken in tongues, but they had all received the baptism of the Spirit. 고린도 사람들이 모두가 방언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1 Corinthians 12:13a』¹³ For by one Spirit are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고린도전서 12:13a』¹³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The Bible clearly teaches that the gift of tongues was not the sure sign of the Spirit's baptism even in New Testament times, 성경은 신약 시대에서조차, 분명히 방언의 선물이 성령침례의 신호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because all the Corinthians had received the baptism of the Spirit but not all had spoken in tongues. 모든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성령침례를 받았지만, 모두가 방언을 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7 Conclusion

Now I would like to make a conclusion..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As we have see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ptism of the Spirit and the filling of the Spirit, they are not only distinguished, but have some rather striking differences between them. 지금까지 성령침례와 성령충만의 차이를 살펴본 것 처럼, 그 둘은 구별될 뿐 아니라, 놀랄만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However, in short, the baptism of the Spirit leads to our justification or having citizenship of Heaven, 요약하면, 성령침례는 우리를 칭의, 즉 천국 시민권자로 인도하며,

and the filling of the Spirit leads to our sanctification or having rewards in Heaven. 성령충만은 우리를 성화, 즉 천국에서의 보상으로 인도합니다.

Charismatic terms such as the baptism with fire, the second blessing, and speaking in tongue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baptism of the Spirit. 불 침례, 둘째 축복, 방언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용어들은 성령침례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Before I close my preaching, I will ask you one question.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ave you been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If you have not yet, please come to Brothers and Sisters after morning service, and they will let you know how to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아직 없다면, 오전 예배 후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And if you have already, please continue to seek the filling of the Spirit until the Lord comes again. 이미

성령침례를 받으셨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계속해서 성령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Let's pray ***

Father,

Thank you so much again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search the Scriptures about the baptism of the Spirit. Now I pray to you God that we would continue to study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that we may show ourselves approved unto you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In Jesus' name I pray. Amen.